

2024
고2 문학
신사고

고2 문학 신사고 | 4(3)(1) 봉산 탈춤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전 보강 유형

<봉산 탈춤>의 표현상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최다 빈출되었습니다. 해당 작품은 조선 후기 황해도 봉산에서 연행되던 가면극으로 7개의 독립된 과장으로 구성되고,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으며, 재담 구조의 반복이 드러나고, 서민과 양반의 언어가 혼재해서 나타나며, 언어유희, 열거 등의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당대 현실을 풍자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작품의 특징들을 내용과 연결하여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제6과장 양반·말뚝이춤

말뚝이: (병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양반 삼 형제를 인도하여 등장.)

양반 삼 형제: (말뚝이 뒤를 따라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점잔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 양반 삼 형제 맏이는 생님[生員], 둘째는 서방님[書房], 끝은 도련님[道令]이다. 생님과 서방님은 흰 창옷에 관을 썼다. 도련님은 남색 쾌자에 복건을 썼다. 생님과 서방님은 언청이이며(생님은 언청이 두 줄, 서방님은 한 줄이다.)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고,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고 부채만 가졌다. 도련님은 일절 대사는 없으며, 형들과 동작을 같이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군다.)

말뚝이: (가운데쯤에 나와서) 쉬이. (음악과 춤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야!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老論), 소론(少論), 호조(戶曹), 병조(兵曹), 옥당(玉堂)을 다 지내고 삼정승(三政丞), 육판서(六判書)를 다 지낸 퇴로 재상(退老宰相)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개질량이라는 ‘양’ 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 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양반들: 야아, 이놈, 뭐야아!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

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 생원네 삼 형제가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합창) 이 생원이라네. (굿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말뚝이: 쉬이. (반주 그친다.)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 보시오. 짤따란 곰방대로 잡숫지 말고 저 연죽전(煙竹塵)으로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양칠간죽(洋漆竿竹), 자문죽(自紋竹)을 한 발가웃씩 되는 것을 사다가 육모깎지 희자죽(喜子竹), 오동수복(烏銅壽福) 연변죽을 이리저리 맞추어 가지고 저 재령(載寧) 나무리 거이 낚시 걸듯 죽 걸어 놓고 잡수시오.

양반들: 뭐야아!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듣소.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흰화(喧譁)를 금하라 그리하였소.

양반들: (합창) 흰화를 금하였다네. (굿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말뚝이: 쉬이. (춤과 반주 그친다.)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오음 육률(五音六律) 다 버리고 저 버드나무 훌뚜기 뽑아다 불고 바가지장단 좀 쳐 주오.

양반들: 야아, 이놈, 뭐야!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듣소. 용두 해금(龍頭奚琴), 북, 장고, 피리, 젓대 한 가락도 뽑지 말고 건건드러지게 치라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합창) 건건드러지게 치라네. (굿거리장단으로 춤을 춘다.) (중략)

생원: 쉬이. (음악과 춤을 멈춘다.) 여보게, 동생. 우리가 본시 양반이라, 이런데 가만히 있자니 갑갑도 하네. 우리 시조(時調) 한 수씩 불러 보세.

서방: 형님,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양반들: (시조를 읊는다.) “……반 남아 늙었으니 다시 젊지는 못하리라…….” 하하. (하고 웃는다. 양반 시조 다음에 말뚝이가 자칭하여 소리를 한다.)

말뚝이: “낙양성 십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에…….”

생원: 다음은 글이나 한 수씩 지어 보세.

서방: 그럼 형님이 먼저 지어 보시오.
 생원: 그러면 동생이 운자(韻字)를 내게.
 서방: 네, 제가 한번 내 드리겠습니다. ‘산’ 자, ‘영’ 잡니다.
 생원: 아, 그것 어렵다. 여보게, 동생. 되고 안 되고 내가 부를 터이니 들어 보게. (영시조(詠詩調)로) “울룩줄룩 작대산(作大山)하니, 황주(黃州) 평산(平山)에 동선령(洞仙嶺)이라.”
 서방: 하하. (형제, 같이 웃는다.) 거 형님, 잘 지었습니다.
 생원: 동생 한 귀 지어 보세.
 서방: 그럼 형님이 운자를 하나 내십시오.
 생원: ‘총’ 자, ‘못’ 잘세.
 서방: 아, 그 운자 벽자(僻字)로군. (한참 킁킁거리다가) 형님, 한마디 들어 보십시오. (영시조로) “짚세기 앞총은 형겅총하니, 나막신 뒤축에 거덜못이라.” (중략)
 생원: 이번엔 파자(破字)나 하여 보자. 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이는 알락달락한 자가 무슨 자나?
 서방: (한참 생각하다가) 네에, 거 운고옥편(韻考玉篇)에도 없는 자인데, 그것 참 어렵습니다. 그 피마자(蓖麻子)라고 하는 자가 아닙니까?
 생원: 아, 거 동생 참 용할세.
 서방: 형님, 내가 그럼 한 자 부르라우?
 생원: 부르게.
 서방: 논두렁에 살피 짚고 섰는 자가 무슨 잡니까?
 생원: (한참 생각하다가) 아, 그것 참 어려운 잘세. 그것은 논임자가 아닌가?
 서방: 하하, 그것 형님 참 잘 맞혔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취발이 살짝 들어와 한편 구석에서 있다.)
 생원: 이놈, 말뚝아.
 말뚝이: 예에.
 생원: 나랏돈 노랑돈 칠 푼 잘라먹은 놈, 상통이 무르익은 대초빛 같고, 울룩줄룩 배미 잔등 같은 놈을 잡아들여라.
 말뚝이: 그놈이 심(힘)이 무량대각(無量大角)이요, 날렵이 비호(飛虎) 같은데, 썩님의 전령(傳令)이나 있으면 잡아 올는지 거저는 잡아 올 수 없습니다.
 생원: 오오, 그리하여라. 옛다. 여기 전령 가지고 가거라. (종이에 무엇을 써서 준다.)
 말뚝이: (종이를 받아 들고 취발이한테로 가서) 당신 잡히었소.

취발이: 어데, 전령 보자.
 말뚝이: (종이를 취발이에게 보인다.)
 취발이: (종이를 보더니 말뚝이에게 끌려 양반의 앞에 온다.)
 말뚝이: (취발이 엉덩이를 양반 코앞에 내밀게 하며) 그놈 잡아들였소.
 생원: 아, 이놈 말뚝아. 이게 무슨 냄새냐?
 말뚝이: 예, 이놈이 피신(避身)을 하여 다니기 때문에, 양치를 못 하여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모양이외다.
 생원: 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밀구녕에다 갖다 박아라. (중략)
 말뚝이: 썩님, 말씀 들으시오. 시대(時代)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뭇 하오? 돈이나 몇백 냥 내라고 하여 우리끼리 노나 쓰도록 하면, 썩님도 좋고 나도 돈냥이나 벌어 쓰지 않겠소. 그러니 썩님은 못 본 체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다 잘 처리하고 갈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오. (긋리장단에 맞추어 일제히 어울려서 한바탕 춤추다가 전원 퇴장한다.)

- 제 6 과장 끝 -

- 작자 미상, <봉산 탈춤>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성격이 강하다.
- ㄴ. 서민의 언어와 양반의 언어가 함께 나타난다.
- ㄷ. 춤, 노래, 연극이 혼합된 종합예술 형태로 구연된다.
- ㄹ. 전체 7개의 과장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 ㅁ. 신분의 역전이라는 조선 후기 사회상이 나타난다.

- ① ㄱ, ㄴ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2. 윗글을 바탕으로 가면극의 특성을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음악과 춤을 활용하여 등장인물 간의 갈등을 긴장감 있게 구현하였다.
- ② 등장인물의 가면의 생김새나 복장을 통해 인물의 특성을 표현하였다.
- ③ 특정한 무대 장치 없이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극 중 공간을 설정하였다.
- ④ 무대와 객석이 구분이 없어 무대 밖의 관객이나 악공이 극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 ⑤ 서민들의 일상어를 바탕으로 익살과 과장된 표현 등을 주로 사용하여 골계미를 유발하였다.

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극이 진행되며 등장인물 간의 갈등이 점층적으로 쌓여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재담의 시작을 안내하는 특정한 표현이 드러나며, 이는 말뚝이의 전담 대사라고 할 수 있다.
- ③ 조선 후기의 신분 질서가 동요되는 당시 시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 ④ 등장인물의 대사를 바탕으로 명예에 대한 욕심으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인물 간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을 드러냄으로써 작품의 주제 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복장이나 차림을 통해 등장인물의 신분이 드러나고 있다.
- ② 신분 질서가 동요되던 당시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 ③ 양반과 평민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당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 ④ 양반들의 모습이 경박하게 그려지거나 희화화되어 나타난다.
- ⑤ 이야기에 춤과 음악이 어우러져서 종합 예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5. 윗글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황해도 봉산 지방의 탈춤으로 총 7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② 조선 후기 생활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탈놀이의 하나이다.
- ③ 연희자들은 주로 몰락한 양반들로 그들의 불만을 놀이 속에 잘 드러내고 있다.
- ④ 양반과 파계승, 남성과 부당한 횡포 등에 대한 비판과 풍자의 내용이 잘 담겨 있다.
- ⑤ 각 과장에는 말뚝이, 취발이, 노장, 소무, 미알 등 뚜렷한 개성을 지닌 등장인물이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다.

신유형

구절에 기호를 붙여 그 의미를 묻는 문제, 구절에 기호를 붙여 그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 해당 작품의 재담 구조를 제시하여 푸는 문제, 어휘 풀이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해당 작품은 양반의 무지와 허세에 대한 조롱과 풍자를 재담의 구조를 통해 드러내는데, 말뚝이의 '쉬이'를 통해 재담이 시작되고 '말뚝이의 조롱 → 양반의 호통 → 말뚝이의 변명 → 양반의 안심'으로 전개되며, 모두 춤을 추며 재담이 마무리됩니다. 또한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에서 내용을 꼼꼼히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에 작품의 구절별 의미는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6~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제6과장 양반·말뚝이춤

말뚝이: (병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양반 삼 형제를 인도하여 등장.)

양반 삼 형제: (말뚝이 뒤를 따라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점잔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 양반 삼 형제 만이는 샌님[生員], 둘째는 서방님[書房], 끝은 도련님[道令]이다. 샌님과 서방님은 흰 창옷에 관을 썼다. 도련님은 남색 쾌자에 복건을 썼다. 샌님과 서방님은 언청이이며(샌님은 언청이 두 줄, 서방님은 한 줄이다.)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고, 도련

님은 입이 삐뚤어졌고 부채만 가졌다. 도련님은 일절 대사는 없으며, 형들과 동작을 같이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군다.)

말뚝이: (가운데쯤에 나와서) ㉞쉬이. (음악과 춤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야!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老論), 소론(少論), 호조(戶曹), 병조(兵曹), 옥당(玉堂)을 다 지내고 삼정승(三政丞), 육판서(六判書)를 다 지낸 퇴로 재상(退老宰相)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개질량이라는 ‘양’ 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 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양반들: ㉞야아, 이놈, 뭐야아!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 생원네 삼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합창) 이 생원이라네. (㉞긋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말뚝이: 쉬이. (㉞반주 그친다.)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 보시오. 짤따란 곰방대로 잡숫지 말고 저 연죽전(煙竹簾)으로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㉞양칠간죽(洋漆竿竹), 자문죽(自紋竹)을 한 발가웃씩 되는 것을 사다가 육모깎지희자죽(喜子竹), 오동수복(烏銅壽福) 연변죽을 이리저리 맞추어 가지고 저 재령(載寧) 나무리 거이 낚시 걸듯 죽 걸어 놓고 잡수시오.

양반들: 뭐야아!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듣소. ㉞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흰화(喧譁)를 금하라 그리하였소.

양반들: (합창) 흰화를 금하였다네. (㉞긋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말뚝이: 쉬이. (춤과 반주 그친다.) ㉞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오음 육률(五音六律) 다 버리고 저 버드나무 홀뚜기 뽑아다 불고 바가지장단 좀 쳐주오.

양반들: 야아, 이놈, 뭐야!

말뚝이: ㉞아, 이 양반들, 어찌 듣소. 용두 해금(龍頭奚琴), 북, 장고, 피리, 젓대 한 가락도 뽑지 말고 건건드러지게 치라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합창) 건건드러지게 치라네. (긋거리장단으로 춤을 춘다.) (중략)

생원: 쉬이. (음악과 춤을 멈춘다.) 여보게, 동생. 우리가 본시 양반이라, 이런데 가만히 있자니 갑갑

도 하네. 우리 시조(時調) 한 수씩 불러 보세.

서방: 형님,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양반들: (시조를 읊는다.) “……반 남아 늙었으니 다시 젊지는 못하리라…….” 하하. (하고 웃는다. 양반 시조 다음에 말뚝이가 자청하여 소리를 한다.)

말뚝이: “낙양성 십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에…….”

생원: 다음은 글이나 한 수씩 지어 보세.

서방: 그럼 형님이 먼저 지어 보시오.

생원: 그러면 동생이 운자(韻字)를 내게.

서방: 네, 제가 한번 내 드리겠습니다. ‘산’ 자, ‘영’ 잡니다.

생원: 아, 그것 어렵다. 여보게, 동생. 되고 안 되고 내가 부를 터이니 들어 보게. (영시조(詠詩調)로 “울룩줄룩 작대산(作大山)하니, 황주(黃州) 평산(平山)에 동선령(洞仙嶺)이라.”

서방: 하하. (형제, 같이 웃는다.) 거 형님, 잘 지었습니다.

생원: 동생 한 귀 지어 보세.

서방: 그럼 형님이 운자를 하나 내십시오.

생원: ‘총’ 자, ‘못’ 잘세.

서방: 아, 그 운자 벽자(僻字)로군. (한참 킁킁거리다가) 형님, 한마디 들어 보십시오. (영시조로) “짚세기 앞총은 형겅총하니, 나막신 뒤축에 거덜못이라.” (중략)

생원: 이번엔 파자(破字)나 하여 보자. 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이는 알락달락한 자가 무슨 자냐?

서방: (한참 생각하다가) 네에, 거 운고옥편(韻考玉篇)에도 없는 자인데, 그것 참 어렵습니다. 그 피마자(蓖麻子)라고 하는 자가 아닙니까?

생원: 아, 거 동생 참 용할세.

서방: 형님, 내가 그럼 한 자 부르라우?

생원: 부르게.

서방: 논두렁에 살피 짚고 섰는 자가 무슨 잡니까?

생원: (한참 생각하다가) 아, 그것 참 어려운 잘세. 그것은 논임자가 아닌가?

서방: 하하, 그것 형님 참 잘 맞혔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취발이 살짝 들어와 한편 구석에 서 있다.)

생원: 이놈, 말뚝아.

말뚝이: 예에.

생원: 나랏돈 노랑돈 칠 폰 잘라먹은 놈, 상통이 무르익은 대초빛 같고, 울룩줄룩 배미 잔등 같은 놈

을 잡아들여라.

말뚝이: 그놈이 심(힘)이 무량대각(無量大角)이
요, 날람이 비호(飛虎) 같은데, 샌님의 전령(傳令)이
나 있으면 잡아 올는지 거저는 잡아 올 수 없습니다.

생원: 오오, 그리하여라. 였다. 여기 전령 가지고
가거라. (종이에 무엇을 써서 준다.)

말뚝이: (종이를 받아 들고 취발이한테로 가서) 당
신 잡히었소.

취발이: ㉠어데, 전령 보자.

말뚝이: (종이를 취발이에게 보인다.)

취발이: (종이를 보더니 말뚝이에게 끌려 양반의
앞에 온다.)

말뚝이: (취발이 엉덩이를 양반 코앞에 내밀게 하
며) 그놈 잡아들였소.

생원: 아, 이놈 말뚝아. 이게 무슨 냄새냐?

말뚝이: 예, 이놈이 피신(避身)을 하여 다니기 때
문에, 양치를 못 하여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모양이
외다.

생원: 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밑구렁에
다 갖다 박아라. (중략)

말뚝이: 샌님, 말씀 들으시오. ㉢시대(時代)가 금
전이면 그만인데,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뭇 하
오? 돈이나 몇백 냥 내라고 하여 우리끼리 노나 쓰도
록 하면, 샌님도 좋고 나도 돈냥이나 벌어 쓰지 않겠
소. 그러니 샌님은 못 본 체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
다 잘 처리하고 갈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오. (긋거
리장단에 맞추어 일제히 어울려서 한바탕 춤추다가
전원 퇴장한다.)

- 제 6 과장 끝 -

6. 윗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은?

- ① ㉠: 관객에게 장죽으로 담배를 피라고 요청함으
로써 양반과 친하게 지내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
난다.
- ② ㉡: 일시적으로 갈등이 해소되고 인물들이 화해
하면서 하나의 재담이 끝났음을 알려 준다.
- ③ ㉢: 신분 질서가 동요함에도 양반의 권위가 드
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 황당한 말을 하는 양반의 모습에서 서민에
대한 횡포가 드러난다.
- ⑤ ㉢: 돈이 제일이라는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조선 후기의 사회상과 권력층의 부패한 모습이
드러난다.

7. 윗글의 재담 구조가 <보기>와 같다고 할 때, (가)
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양반의 위엄 → (가) → 양반의 호통 → (나)
→ 양반의 안심 → 양반과 말뚝이의 일시적 화
해

	(가)	(나)
①	말뚝이의 아부	말뚝이의 변명
②	말뚝이의 조롱	말뚝이의 변명
③	말뚝이의 대항	말뚝이의 호통
④	말뚝이의 칭찬	말뚝이의 놀이
⑤	말뚝이의 장난	말뚝이의 아부

8. ㉠~㉢ 중 <보기>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전통극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 무대와 관
객석이 엄격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극이 시작될 때 배우들이 등장하여 관
객석의 한가운데 서서 관객에게 자리를 빌려
그곳을 바로 무대로 삼기도 한다. 이 때문에 극
이 진행되는 도중 배우가 아닌 사람에게 자유
롭게 말을 붙여 대사가 진행되기도 한다.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재담의 시작이고, ㉡는 재담의 마무리다.
- ② ㉠은 한 인물이, ㉡는 등장인물 전체가 연기한다.
- ③ ㉠은 관객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는 관객의 흥을 돋운다.
- ④ ㉠은 갈등을 시작하게 하고, ㉡는 갈등이 해소됨을 알린다.
- ⑤ ㉠은 춤에서 재담으로, ㉡는 재담에서 춤으로 공연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제6과장 양반·말뚝이춤

말뚝이: (빙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양반 삼 형제를 인도하여 등장.)

양반 삼 형제: (말뚝이 뒤를 따라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점잔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 양반 삼 형제 만이는 생님[生員], 둘째는 서방님[書房], 끝은 도련님[道令]이다. 생님과 서방님은 흰 창옷에 관을 썼다. 도련님은 남색 쾌자에 복건을 썼다. 생님과 서방님은 언청이이며(생님은 언청이 두 줄, 서방님은 한 줄이다.)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고,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고 부채만 가졌다. 도련님은 일절 대사는 없으며, 형들과 동작을 같이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군다.)

말뚝이: (가운데쯤에 나와서) 쉬이. (음악과 춤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아!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老論), 소론(少論), 호조(戶曹), 병조(兵曹), 옥당(玉堂)을 다 지내고 삼정승(三政丞), 육판서(六判書)를 다 지낸 퇴로 재상(退老宰相)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개 잘량이라는 ‘양’ 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 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A] 양반들: 야아, 이놈, 뭐야아!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생원네 삼 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합창) 이 생원이라네. (굿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말뚝이: 쉬이. (반주 그친다.)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 보시오. 짤따란 곰방대로 잡숫지 말고 저 연죽전(煙竹塵)으로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양칠간죽(洋漆竿竹), 자문죽(自紋竹)을 한 발가웃씩 되는 것을 사다가 육모깎지 희자죽(喜子竹), 오동수복(烏銅壽福) 연변죽을 이리저리 맞추어 가지고 저 재령(載寧) 나무리 거이 낚시 걸듯 죽 걸어 놓고 잡수시오.

양반들: 뭐야아!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듣소. 양반 나오시는 데 담배와 흰화(喧譁)를 금하라 그리하였소.

양반들: (합창) 흰화를 금하였다네. (굿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말뚝이: 쉬이. (춤과 반주 그친다.)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오음 육률(五音六律) 다 버리고 저 버드나무 훌뚜기 뽑아다 불고 바가지장단 좀 쳐 주오.

양반들: 야아, 이놈, 뭐야!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듣소. 용두 해금(龍頭奚琴), 북, 장고, 피리, 젓대 한 가락도 뽑지 말고 건건드러지게 치라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합창) 건건드러지게 치라네. (굿거리장단으로 춤을 춘다.) (중략)

생원: 쉬이. (음악과 춤을 멈춘다.) 여보게, 동생. 우리가 본시 양반이라, 이런데 가만히 있자니 갑갑도 하네. 우리 시조(時調) 한 수씩 불러 보세.

서방: 형님,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양반들: (시조를 읊는다.) “……반 남아 늙었으니 다시 젊지는 못하리라…….” 하하. (하고 웃는다. 양반 시조 다음에 말뚝이가 자청하여 소리를 한다.)

말뚝이: “낙양성 십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에…….”

생원: 다음은 글이나 한 수씩 지어 보세.

서방: 그럼 형님이 먼저 지어 보시오.

생원: 그러면 동생이 운자(韻字)를 내게.

서방: 네, 제가 한번 내 드리겠습니다. ‘산’ 자, ‘영’ 잡니다.

생원: 아, 그것 어렵다. 여보게, 동생. 되고 안 되고 내가 부를 터이니 들어 보게. (영시조(詠詩調)로 “울룩줄룩 작대산(作大山)하니, 황주(黃州) 평산(平

山)에 동선령(洞仙嶺)이라.”

서방: 하하. (형제, 같이 웃는다.) 거 형님, 잘 지었 습니다.

생원: 동생 한 귀 지어 보세.

서방: 그럼 형님이 운자를 하나 내십시오.

생원: ‘총’ 자, ‘못’ 잘세.

서방: 아, 그 운자 벽자(僻字)로군. (한참 킁킁거 리다가) 형님, 한마디 들어 보십시오. (영시조로) “짚세기 앞총은 형겹총하니, 나막신 뒤축에 거덜못 이라.” (중략)

생원: 이번엔 파자(破字)나 하여 보자. 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이는 알락달락한 자가 무슨 자냐?

서방: (한참 생각하다가) 네에, 거 운고옥편(韻考 玉篇)에도 없는 자인데, 그것 참 어렵습니다. 그 피 마자(蓖麻子)라고 하는 자가 아닙니까?

생원: 아, 거 동생 참 용할세.

서방: 형님, 내가 그럼 한 자 부르라우?

생원: 부르께.

서방: 논두렁에 살피 짚고 섰는 자가 무슨 잡니 까?

생원: (한참 생각하다가) 아, 그것 참 어려운 잘세. 그것은 논임자가 아닌가?

서방: 하하, 그것 형님 참 잘 맞혔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취발이 살짝 들어와 한편 구석에 서 있다.)

생원: 이놈, 말뚝아.

말뚝이: 예에.

생원: 나랏돈 노랑돈 칠 푼 잘라먹은 놈, 상통이 무르익은 대초빛 같고, 울룩줄룩 배미 잔등 같은 놈 을 잡아들여라.

말뚝이: 그놈이 심(힘)이 무량대각(無量大角)이 요, 날랩이 비호(飛虎) 같은데, 썬님의 전령(傳令)이 나 있으면 잡아 올는지 거저는 잡아 올 수 없습니다.

생원: 오오, 그리하여라. 였다. 여기 전령 가지고 가거라. (종이에 무엇을 써서 준다.)

말뚝이: (종이를 받아 들고 취발이한테로 가서) 당 신 잡히었소.

취발이: 어데, 전령 보자.

말뚝이: (종이를 취발이에게 보인다.)

취발이: (종이를 보더니 말뚝이에게 끌려 양반의 앞에 온다.)

말뚝이: (취발이 엉덩이를 양반 코앞에 내밀게 하 며) 그놈 잡아들였소.

생원: 아, 이놈 말뚝아. 이게 무슨 냄새냐?

말뚝이: 예, 이놈이 피신(避身)을 하여 다니기 때 문에, 양치를 못 하여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모양이 워다.

생원: 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밀구녕에다 갖다 박아라. (중략)

말뚝이: 썬님, 말씀 들으시오. 시대(時代)가 금전 이면 그만인데,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뭇 하 오? 돈이나 몇백 냥 내라고 하여 우리끼리 노나 쓰도 록 하면, 썬님도 좋고 나도 돈냥이나 벌어 쓰지 않겠 소. 그러니 썬님은 못 본 체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 다 잘 처리하고 갈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오. (긋거 리장단에 맞추어 일제히 어울려서 한바탕 춤추다가 전원 퇴장한다.)

- 제 6 과장 끝 -

- 작자 미상, <봉산 탈춤>

1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위 작품에 나타나는 ‘쉬이’는 재담의 시작을 알 리고, 관객들의 주의를 환기하는 기능을 한다.
- ② 위 작품에 나타나는 ‘춤’은 재담이 마무리됨을 의미하며, 양반 삼 형제와 말뚝이 사이의 갈등을 심화하는 기능을 한다.
- ③ 위 작품은 양반들이 사용하는 한자어와, 평민들 이 사용하는 일상어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 ④ 위 작품의 관객은 극중 개입이 가능하며 적극적인 참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⑤ 위 작품에서 사용되는 탈은 인물의 성격을 극적 으로 표현하여 관객의 몰입도와 이해도를 높여 준다.

11. 다음 <보기>는 재담의 특징을 바탕으로 [A]를 구조화한 도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양반의 위엄 → ㉡ 말뚝이의 조롱 → ㉢ 양 반의 조롱 → ㉣ 말뚝이의 변명 → ㉤ 양반의 안심

- ① ㉡: ‘3정승 6판서’라는 표현을 통해 양반 3형제

의 위엄을 높여 양반과 하인 말뚝이의 정상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 ② ㉠: 말뚝이가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로 양반을 조롱함으로써 양반의 위엄이 급격히 파괴된다.
- ③ ㉡: ‘야아, 이놈, 뭐야아!’라는 호통을 통해 말뚝이의 조롱을 제재하고 양반들의 위엄을 다시 세우려 한다.
- ④ ㉢: 말뚝이는 변명을 통해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조롱을 부정한다.
- ⑤ ㉣: 말뚝이의 변명을 받아들이고 안심하는 양반들의 무지함이 폭로된다.

12. 다음 <보기>에 관련하여 양반들의 놀이 장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양반들의 놀이 장면

㉠ 시조 읊기 → ㉡ 운자 놀이 → ㉢ 파자 놀기

- ① 양반들은 다양한 놀이를 통해 자신들의 유식함을 과시하려고 한다.
- ② ㉠에서 말뚝이는 양반보다 뛰어난 시조를 읊음으로써 양반을 조롱하고 있다.
- ③ ㉡에서 양반들은 억지로 운자만 맞춘 의미 없는 문장들을 나열함으로써 자신들의 무지를 스스로 폭로하고 있다.
- ④ ㉢에서 양반들은 사실상 한자를 이용한 놀이가 아니라 단순한 수수께끼를 내고 있다.
- ⑤ ㉠과 달리 ㉡, ㉢에서는 말뚝이가 양반들의 놀이에 참여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지 않다.

13. 윗글과 같은 극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다.
- ② 관객이 극 중에 개입할 수 있다.
- ③ 특정한 무대나 무대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④ 각 과장이 분리되어 독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 ⑤ 공연 장소와 극 중 장소가 따로 설정되어 있다.

【14~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제6과장 양반·말뚝이춤

말뚝이: (병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 곳거리장단에 맞추어 양반 삼 형제를 인도하여 등장.)

양반 삼 형제: (㉠말뚝이 뒤를 따라 곳거리장단에 맞추어 점잔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 양반 삼 형제 만이는 샌님[生員], 둘째는 서방님[書房], 끝은 도련님[道令]이다. 샌님과 서방님은 흰 창옷에 관을 썼다. 도련님은 남색 쾌자에 복건을 썼다. 샌님과 서방님은 언청이이며(샌님은 언청이 두 줄, 서방님은 한 줄이다.)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고,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고 부채만 가졌다. 도련님은 일절 대사는 없으며, 형들과 동작을 같이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군다.)

말뚝이: (가운데쯤에 나와서) 쉬이. (음악과 춤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아!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老論), 소론(少論), 호조(戶曹), 병조(兵曹), 옥당(玉堂)을 다 지내고 삼정승(三政丞), 육판서(六判書)를 다 지낸 ㉡퇴로 재상(退老宰相)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개질량이라는 ‘양’ 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 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양반들: 야아, 이놈, 뭐야아!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갔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 생원네 삼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합창) 이 생원이라네. (긋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말뚝이: 쉬이. (반주 그친다.)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 보시오. 짤따란 곰방대로 잡숫지 말고 저 연죽전(煙竹麩)으로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양칠간죽(洋漆竿竹), 자문죽(自紋竹)을 한 발 가웃씩 되는 것을 사다가 육모각지 희자죽(喜子竹), 오동수복(烏銅壽福) 연변죽을 이리저리 맞추어 가지고 저 재령(載寧) 나무리 거이 낚시 걸듯 죽 걸어 놓고 잡수시오.

양반들: 뭐야아!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듣소.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원화(喧譁)**를 금하라 그리하였소.

양반들: (합창) ㉠**원화**를 금하였다네. (긋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말뚝이: 쉬이. (춤과 반주 그친다.)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오음 육률(五音六律) 다 버리고 저 버드나무 훌뚜기 뽑아다 불고 바가지장단 좀 쳐 주오.

양반들: 야아, 이놈, 뭐야!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듣소. 용두 해금(龍頭奚琴), 북, 장고, 피리, 젓대 한 가락도 뽑지 말고 건건드러지게 치라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합창) 건건드러지게 치라네. (긋거리장단으로 춤을 춘다.) (중략)

생원: 쉬이. (음악과 춤을 멈춘다.) 여보게, 동생. 우리가 본시 양반이라, 이런데 가만히 있자니 갑갑도 하네. 우리 시조(時調) 한 수씩 불러 보세.

서방: 형님,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양반들: (시조를 읊는다.) “……반 남아 늙었으니 다시 젊지는 못하리라…….” 하하. (하고 웃는다. 양반 시조 다음에 말뚝이가 자청하여 소리를 한다.)

말뚝이: “낙양성 십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에…….”

생원: 다음은 글이나 한 수씩 지어 보세.

서방: 그럼 형님이 먼저 지어 보시오.

생원: 그러면 동생이 운자(韻字)를 내게.

서방: 네, 제가 한번 내 드리겠습니다. ‘산’ 자, ‘영’ 잡니다.

생원: 아, 그것 어렵다. 여보게, 동생. 되고 안 되

고 내가 부를 터이니 들어 보게. (영시조(詠詩調)로) “울룩줄룩 작대산(作大山)하니, 황주(黃州) 평산(平山)에 동선령(洞仙嶺)이라.”

서방: 하하. (형제, 같이 웃는다.) 거 형님, 잘 지었습니다.

생원: 동생 한 귀 지어 보세.

서방: 그럼 형님이 운자를 하나 내십시오.

생원: ‘총’ 자, ‘못’ 잘세.

서방: 아, 그 운자 ㉡**벽자(僻字)**로군. (한참 킁킁거리다가) 형님, 한마디 들어 보십시오. (영시조로) “짚세기 앞총은 형곶총하니, 나막신 뒤축에 거털못이라.” (중략)

생원: 이번엔 ㉢**파자(破字)**나 하여 보자. 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이는 알락달락한 자가 무슨 자냐?

서방: (한참 생각하다가) 네에, 거 운고옥편(韻考玉篇)에도 없는 자인데, 그것 참 어렵습니다. 그 ㉣**피마자(蓖麻子)**라고 하는 자가 아닙니까?

생원: 아, 거 동생 참 용할세.

서방: 형님, 내가 그럼 한 자 부르라우?

생원: 부르게.

서방: 논두렁에 살피 짚고 섰는 자가 무슨 잡니까?

생원: (한참 생각하다가) 아, 그것 참 어려운 잘세. 그것은 논임자가 아닌가?

서방: 하하, 그것 형님 참 잘 맞혔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취발이 살짝 들어와 한편 구석에서 있다.)

생원: 이놈, 말뚝아.

말뚝이: 예에.

생원: 나랏돈 노랑돈 칠 푼 잘라먹은 놈, 상통이 무르익은 대초빛 같고, 울룩줄룩 배미 잔등 같은 놈을 잡아들여라.

말뚝이: 그놈이 심(힘)이 무량대각(無量大角)이요, 날랩이 비호(飛虎) 같은데, 샌님의 전령(傳令)이나 있으면 잡아 올는지 거저는 잡아 올 수 없습니다.

생원: 오오, 그리하여라. 였다. 여기 전령 가지고 가거라. (종이에 무엇을 써서 준다.)

말뚝이: (종이를 받아 들고 취발이한테로 가서) 당신 잡히었소.

취발이: 어데, 전령 보자.

말뚝이: (종이를 취발이에게 보인다.)

취발이: (종이를 보더니 말뚝이에게 끌려 양반의 앞에 온다.)

말뚝이: (취발이 엉덩이를 양반 코앞에 내밀게 하

며) 그놈 잡아들였소.

생원: 아, 이놈 말뚝아. 이게 무슨 냄새냐?

말뚝이: 예, 이놈이 피신(避身)을 하여 다니기 때문에, 양치를 못 하여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모양이 외다.

생원: 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밀구녕에다 갖다 박아라. (중략)

말뚝이: 샌님, 말씀 들으시오. 시대(時代)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뭇 하오? 돈이나 몇백 냥 내라고 하여 우리끼리 노나 쓰도록 하면, 샌님도 좋고 나도 돈냥이나 벌어 쓰지 않겠소. 그러니 샌님은 못 본 체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다 잘 처리하고 갈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오. (긱거리장단에 맞추어 일제히 어울려서 한바탕 춤추다가 전원 퇴장한다.)

- 제 6 과장 끝 -

- 작자 미상, <봉산 탈춤>

14. 윗글은 동일한 구조의 재담이 반복되고 있다. 다음 중 ㉠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말뚝이의 조롱 → 양반들의 호통 → (㉠) →
안심하는 양반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15. 다음 중 어휘 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개잘량: 개의 가죽, 흔히 방석처럼 쓰임.
- ② ㉡흰화: 꽃을 바치는 행위
- ③ ㉢벽자: 흔히 쓰지 않는 까다롭고 어려운 글자
- ④ ㉣파자: 한자의 자획을 풀어 나누는 것
- ⑤ ㉤피마자: (식물) 아주까리

16. 윗글에서 나타난 양반들에 대한 조롱과 풍자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세상 물질 모르면서도 자신들의 경제적 힘만을 믿는 어리석음에 대한 풍자
- ② 양반들이 즐겨 한다는 한자 파자놀이에서 보이는 무지와 허세에 대한 풍자
- ③ 자신들의 신분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에 만족해하는 허세에 대한 풍자
- ④ 양반들의 한시와 글짓기 능력에 대한 풍자
- ⑤ 자신들은 당연히 대우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특권 의식에 대한 풍자

17.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에 맞게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쉬이’는 재담의 () 부분에서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킬 때 사용하고, ‘춤’은 재담의 ()에서 사용한다. 즉, 이 둘은 하나의 사건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쉬이’가 관객의 분위기를 정돈하는 역할을 한다면, ‘춤’은 관객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쉬이’가 ()하고 있다면, ‘춤’은 갈등의 () 해소를 나타내는 기능을 지닌다.

- ① 시작 - 마무리 - 주의를 환기 - 일시적
- ② 시작 - 마무리 - 갈등을 발생 - 근원적
- ③ 시작 - 마무리 - 긴장을 고조 - 일시적
- ④ 마무리 - 시작 - 긴장을 이완 - 근원적
- ⑤ 마무리 - 시작 - 갈등을 고조 - 일시적

정답 및 해설

내신형 기출 문제

1. 정답 ②

ㄱ. '봉산 탈춤'은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성격을 띠는 가면극, 민속극이다.

ㄴ. 윷글은 일정한 재담 구조가 반복되고, 서민과 양반의 언어가 혼재해 있다.

ㄷ. 윷글은 가면극이자 민속극으로 인물들의 춤, 노래, 연극이 혼합된 종합예술 형태로 구연되기에 해당 기호는 적절하다.

ㄹ. '봉산 탈춤'은 7개의 독립된 과장으로 구성되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ㅁ. 신분의 역전이 아니라 서민층을 대표하는 말뚝이가 허위에 찬 양반층을 대표하는 양반 삼 형제를 풍자하는 것일 뿐이기에 해당 기호는 적절하지 않다.

2. 정답 ①

윷글은 가면극이자 민속극으로 인물들의 춤, 노래, 연극이 혼합된 종합예술 형태로 구연되며 음악과 춤을 통해서 등장인물 간의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되기에 등장인물 간의 갈등을 긴장감 있게 구현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윷글에는 서민을 나타내는 가면 및 복장, 양반을 나타내는 가면 및 복장으로 인물의 특성을 표현하였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③ 윷글의 '벙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에서 마부라는 신분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것 등을 통해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악공에게 직접 말을 거는 모습, 관객에게 말을 거는 모습을 통해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없었고, 관객이나 악공이 극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⑤ 윷글은 서민들의 일상어와 양반의 언어를 혼재하여 나타내고 있는데, 말뚝이의 언어를 바탕으로 익살과 과장된 표현 등을 주로 사용하여 골계미를

유발하고 있다.

3. 정답 ③

윷글은 서민층을 대표하는 말뚝이가 허위에 찬 양반층을 대표하는 양반 삼 형제를 풍자하는 것을 통해 갈등이 구현되는데 이는 조선 후기의 신분 질서가 동요되는 당시 시대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① 윷글에서는 음악과 춤을 통해서 등장인물 간의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되기에 갈등이 점층적으로 쌓여가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쉬이'는 관객의 주의를 환기하는 것이고 재담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생원'을 통해서도 재담이 시작되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④ 윷글의 '나랏돈 노랑돈 칠 폰 잘라먹은 놈'이라는 대사를 통해서도 돈에 대한 욕심으로 국고를 횡령한 죄목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⑤ 윷글에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인물 간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을 드러내지 않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4. 정답 ③

윷글은 서민층을 대표하는 말뚝이가 허위에 찬 양반층을 대표하는 양반 삼 형제를 풍자하는 것을 통해 조선 후기의 신분 질서가 동요되는 당시 시대 상황을 드러내는 것일 뿐 양반과 평민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당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윷글에는 서민을 나타내는 가면 및 복장, 양반을 나타내는 가면 및 복장으로 인물의 특성을 표현하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② 윷글은 서민층을 대표하는 말뚝이가 허위에 찬 양반층을 대표하는 양반 삼 형제를 풍자하는 것을 통해 갈등이 구현되는데 이는 조선 후기의 신분 질서가 동요되는 당시 시대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④ 양반들이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하는 모습을 드러내며 양반의 모습을 경박하게 그리거나 희화화하여 나타내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⑤ 윷글은 가면극이자 민속극으로 인물들의 춤, 노래, 연극이 혼합된 종합예술 형태로 구연되기에 해

당 선지는 적절하다.

5. [정답] ③

연희자는 행동과 대사를 중심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재주를 부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말뚝이를 나타내는데 말뚝이는 서민층을 대표하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① '봉산 탈춤'은 7개의 독립된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② 서민층을 대표하는 말뚝이가 허위에 찬 양반층을 대표하는 양반 삼 형제를 풍자하는 것으로 조선 후기의 양반의 위세가 꺾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④ '봉산 탈춤'은 양반과 파계승에 대한 풍자, 남성의 부당한 횡포에 대한 비판, 서민 생활의 애환 등이 주를 이루어 조선 후기의 현실과 서민 문학의 특징을 잘 보여주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 ⑤ 각 과장에는 말뚝이, 취발이, 노장, 소무, 미알 등 뚜렷한 개성을 지닌 등장인물이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조선 후기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보여주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6. [정답] ①

주로 평민인 관객에게 양반 앞에서 마음껏 담배를 피우라고 하는 것은 양반의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기에 양반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을 뿐 양반과 친하게 지내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윗글은 일정한 재담 구조가 반복되는데, 시작은 '쉬이'로 운을 띄워 전개에 일정 재담 구조를 거치고, 끝으로 모두가 춤을 추는 형식인데 마지막 춤에서 인물들이 화해하면서 하나의 재담이 끝났음을 알리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 ③ '전령'은 명령을 전하는 글로, 양반의 막강한 권위를 상징하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 ④ 해당 구절은 서민에 대한 양반의 횡포로 볼 수 있고 양반의 무식함이 드러나며, 황당한 말하기에 웃음을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
- ⑤ 서민층을 대표하는 말뚝이의 '시대(時代)가 금전이면 그만인데'를 통해 돈이 제일이라는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비판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7. [정답] ②

윗글의 재담의 시작은 '쉬이'로 알리고, 전개에서는 '양반의 위엄 → 말뚝이의 조롱 → 양반의 호통 → 말뚝이의 변명 → 양반의 안심 → 양반과 말뚝이의 일시적 화해'로 진행되며 끝으로 모두가 춤을 추기에 해당 선지가 적절하다.

①, ③, ④, ⑤ 나머지는 '봉산 탈춤'의 전개에 해당하는 재담 구조의 순서로 적절하지 않다.

8. [정답] ④

윗글에서는 관객이나 악공에게 말을 거는 장면을 통해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었고, 무대 밖의 관객이나 악공이 극에 참여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양반들'이라는 지칭은 관객을 부르는 것으로 이에 대한 사례로 ㉠가 가장 적절하다.

①, ②, ③, ⑤ 나머지는 무대 위의 등장한 양반을 지칭하는 것으로 무대와 관객석이 엄격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을 드러내지 않기에 적절하지 않다.

9. [정답] ②

㉠에서 등장인물 전체가 춤을 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쉬이'는 말뚝이도 하고, 생원도 하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① 윗글은 일정한 재담 구조가 반복되는데, 시작은 '쉬이'로 운을 띄워 전개에 일정 재담 구조를 거치고, 끝으로 모두가 춤을 추는 형식인데 마지막 춤에서 인물들이 화해하면서 하나의 재담이 끝났음을 알리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 ③ '쉬이'를 통해 관객의 주의를 환기하고, 춤을 통해서 관객의 흥을 돋울 수 있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 ④ '쉬이'를 통해 재담이 시작돼서 갈등이 시작되고, 춤을 통해 갈등이 해소되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 ⑤ '쉬이'는 춤을 추다가 재담으로 넘어가게 하고, 춤을 통해서 재담이 춤으로 전환되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10. [정답] ②

'쉬이'를 통해 재담이 시작돼서 갈등이 고조되고, 춤

을 통해 갈등이 해소되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춤으로 양반 삼 형제와 말뚝이 사이의 갈등을 심화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윗글은 일정한 재담 구조가 반복되는데, 시작은 '쉬이'로 운을 띄우는데, 이는 관객의 주의를 환기하고, 재담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음악과 춤을 멈추게 한다.
- ③ 윗글은 서민과 양반의 언어가 혼재해서 드러나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 ④ 악공에게 직접 말을 거는 모습, 관객에게 말을 거는 모습을 통해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없었고, 관객이나 악공이 극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 ⑤ 위 작품에서 사용되는 탈은 등장인물의 신분을 표현하기도 하고, 인물의 성격을 극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기에 관객의 몰입도와 이해도를 높여주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11. 정답 ①

㉞에서는 양반의 위엄을 드러내는 듯하나 말뚝이가 ' ~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라고 하는 것을 통해 그에 대한 풍자를 엮어서 드러내는 것으로 위엄을 드러낸 후 바로 양반의 위엄을 파기할 준비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정상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㉞의 '개잘량이라는 '양' 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 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를 통해 말뚝이가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로 양반을 조롱함으로써 양반의 위엄을 파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㉞의 '야아, 이놈, 뭐야아!'라는 호통을 통해 말뚝이가 하는 무시와 조롱을 제재하며, 양반들의 위엄을 다시 세우려 하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 ④ ㉞의 말뚝이는 변명을 통해 겉으로만 복종하는 척하면서 당장의 대결을 피하며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조롱을 부정하고 있다.
- ⑤ ㉞에서 양반들은 말뚝이의 변명을 받아들이고, 일시적인 화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통해 양반들의 무지함이 폭로된다.

12. 정답 ②

말뚝이는 잡가와 다를 바 없는 시조를 읊으며 양반의 허세를 풍자하고 있기에 양반보다 뛰어난 시조

를 읊음으로써 양반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양반들은 다양한 놀이를 통해 양반들이 주로 할 수 있는 한자의 사용을 드러내서 자신들의 유식함을 과시하려고 하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 ③ 윗글의 '울룩줄룩 작대산(作大山)하니, 황주(黃州) 평산(平山)에 동선령(洞仙嶺)이라.'를 통해 양반들이 억지로 운자만 맞춘 의미 없는 문장들을 나열함으로써 자신들의 무지를 스스로 폭로하고 있다는 것이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윗글의 '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이는 알락달락한 자가 무슨 자냐? ~ 아닙니까?'를 통해 양반들은 사실상 한자를 이용한 놀이가 아니라 단순한 수수께끼를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시조를 읊는 것까지는 말뚝이의 참여가 나타나지만 그 외에는 말뚝이의 참여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지 않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13. 정답 ⑤

윗글을 통한 공연은 공연 장소와 극 중 장소가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등장인물의 말을 통해서 장소 설정이 가능하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① 악공에게 직접 말을 거는 모습, 관객에게 말을 거는 모습을 통해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관객에게 말을 거는 모습을 통해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없어서 관객이 극 중에 개입할 수 있다.
- ③ 윗글의 '병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에서 마부라는 신분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것이나 따로 무대 공간을 설정해놓지 않는 것을 통해 무대나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봉산 탈춤'은 7개의 독립된 과장으로 구성되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14. 정답 ③

윗글의 재담의 시작은 '쉬이'로 알리고, 전개에서는 '양반의 위엄 → 말뚝이의 조롱 → 양반의 호통 → 말뚝이의 변명 → 양반의 안심 → 양반과 말뚝이의 일시적 화해'로 진행되는데, ㉞에 해당하는 것은 말뚝이의 변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표면적으로 양반의 위상을 다시 보여주기에 해당 선지가 적절하다.

- ① 양반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 ②, ④ 말뚝이의 조롱에 해당한다.
- ⑤ 안심하는 양반들의 모습에 해당한다.

15. [정답] ②

⑥는 시끄럽게 지껄이며 떠든다는 뜻으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꽃을 바치는 행위는 '헌화'에 해당한다.)

- ① ㉠는 털이 붙어 있는 채로 무두질하여 다룬 개의 가죽이며 흔히 방석처럼 깔고 앉는 것이다.
- ③ ㉡는 흔히 쓰지 아니하는 까다로운 글자이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 ④ ㉢는 한자의 자획을 풀어 나누는 것으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 ⑤ ㉣는 대극과에 속하는 한해살이풀로 아주가리라고 한다.

16. [정답] ①

세상 물정 모르는 것은 맞으나 자신들의 경제적 힘만을 믿는 부분이 윗글에서 드러나지 않으며 이를 풍자하고 있지도 않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② 양반들이 즐겨 하는 파자놀이에서 수수께끼를 하는 양반의 모습을 보여 그들의 무지와 허세에 대해 풍자하고 있다.
- ③ 말뚝이가 양반들을 달랠 때 자신들의 신분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에 만족해하고 있기에 이는 양반의 허세에 대한 풍자라고 볼 수 있다.
- ④ 양반들이 한시와 글짓기를 하는데, 제대로 짓지도 못하며 서로 칭찬하는 모습을 통해 그들을 풍자하고 있다.
- ⑤ 말뚝이를 혼내는 모습에서 양반들은 자신들은 당연히 대우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특권 의식을 가진 것을 알 수 있기에 윗글에서는 이를 풍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7. [정답] ①

윗글은 일정한 재담 구조가 반복되는데, 시작은 '쉬이'로 운을 띄워 주의를 환기하는 역할을 하며 전개에 일정한 재담 구조를 거치고, 끝으로 모두가 춤을 추는 형식인데 마지막 춤에서 인물들이 일시적으로 화해하면서 갈등이 해소된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 ②, ③, ④, ⑤ 나머지는 윗글의 일정한 재담 구조의 순서로 보기 어렵기에 적절하지 않다.

18. [정답] ⑤

조선 후기 신흥 상인 계층을 상징하는 '취발이'를 잡을 수 있는 '전령'을 통해 조선 후기지만 남아 있는 양반의 위세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조선 후기 신흥 상인 계층을 상징하는 '취발이'의 힘을 무량대각으로 표현하여, 양반도 함부로 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윗글은 일정한 재담 구조가 반복되는데, 시작은 '쉬이'로 운을 띄워 전개에 일정한 재담 구조를 거치고, 끝으로 모두가 춤을 추는 형식이다.
- ② 말뚝이는 서민 계층을 대표하며 윗글에서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로 양반을 비판하고 있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 ③ 악공에게 직접 말을 거는 모습, 관객에게 말을 거는 모습을 통해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윗글의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뭇 하오? 돈이나 몇백 냥 내라고 하여 우리끼리 노나 쓰도록 하면, 쌤님도 좋고 나도 돈냥이나 벌어 쓰지 않겠소.'를 통해 황금만능주의가 만연하고, 돈을 받고 죄인을 풀어주는 권력층의 부패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9. [정답] ②

악공에게 직접 말을 거는 모습, 관객에게 말을 거는 모습을 통해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① 윗글의 '병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에서 마부라는 신분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것 등을 통해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봉산 탈춤'은 7개의 독립된 과장으로 구성되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 ④ 악공에게 직접 말을 거는 모습, 관객에게 말을 거는 모습을 통해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없어서 등장인물이 관객과 소통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윗글은 양반들이 사용하는 한자어와, 평민들이 사용하는 일상어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20. [정답] ③

말뚝이를 혼내다가도 말뚝이가 변명을 하며 양반을

목안배포금지